

## 개원21주년 기념식 & 학술포럼

### ‘충남의 미래 2040’ 토론회요약

- ▷ 강현수 원장 : 토론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희정지사님 오셨습니다. 유익환 부의장님 오셨습니다(태안이 지역구 시고, 3선, 도의회 부의장 이십니다) 학술세미나에 가장 많이 참석하시는 의원님이십니다. 송미령부원장님 오셨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님이시고, 논산이 고향이십니다. 연구원 원장님 얼마전에 바뀌셔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종시 KDI에서 우천식 선임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세종미래전략 연구포럼을 만들어서 미래논의의장을 마련하셨습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님, 국토정책 전문가시고 당진시가 고향이십니다.

오늘 학술포럼에서 책자 12개 쪽지 중 3개 분야만 발표하였는데, 토론자분들께서 인구, 공간, 경제 3가지 방향에서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송미령 박사님께서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충격과 관련하여 충남 농업농촌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차미숙박사님께서 미래 충남 공간구조에 대해서, 우천식 박사님께서 경제구조에 대해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유익환부의장님은 종합적으로 다루어주시되, 서해안시대 및 충남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의 종합적 의견 부탁드립니다. 내빈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쪽지나 서면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 ▷ 송미령 부원장 :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년사 연구를 추적함. 연구분석결과 20년뒤 사라지게 될 한계마을 4곳이 모두 충남에 있었음. 충남연구원 김정연박사님께서 함께 참여하신 과제로, 충남의 논산, 금산이 포함되어 있음. 당시에 미래에 없어질 마을이 금산에 있었는데, 최근에 현장에 가보고 농촌마을의 변화를 보고 놀라웠음. 마을은 제2거주지 형태로 새로운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가족들과 함께 귀농귀촌해서 새로운 마을형태를 만들고 있었음. 미래연구전망을 하고 외삽법으로 추세를 해보면 없어지는 곳이 많아지는데, 그러나 실제로 작은지역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음. 연구방법론에 의해 인구전망을 그렇게 예측하지만, 작은 농촌지역의 재밌는 사례들을 보면서 농촌의 희망을 생각하게 됨.

미래학자 중 짐데이터, 엘빈토플러와 함께 미래학을 창설한 학자로 하와이대학 교수임. 작년에 연구원으로 초청하였었는데,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세미나 중, 미래학에 대해서 future가 아닌 futures로 복수를 강조하였었음. 우리에게 하나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미래, 위기의 미래 등 많은 미래들이 존재한다는 뜻. 어떤 미래로 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임. 통계로 하면 시나리오 기법, 우리가 가기위한 선택이 어디인가. 충남연구

원도 이런 취지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음. 우리가 갈길은 무엇인가. 미래에 분명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아닐 것이며, 다양한 정주지에서 다양한 삶의 형태가 이루어질 것임. 출산장려를 위한 현금지원 같은 이런 정책이 아니라, 작은지역, everyday life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마음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사례들이 필요함. 우리의 인구정책도, 출산장려를 위해 돈을 줘서다 가 아니라 사람이 일을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마을에 정착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정책이 필요함. 미래의 선택지는 그 방향을 두고 진행 해야하지 않나 생각함.

▷ 강현수 원장 : 충남 당진의 백석올미마을에 가보셨는지. 개인적으로 유심히 살피고 있는데, 백석올미마을은 한마디로 6-70세 할머니들의 ‘일자리공동체’인데 현재 사장님이 노인들이 은퇴를 안하셔서 고민하고 있음. 양로원까지 운영하여 복지공동체로 발돋움 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음.

▷ 송미령 부원장 : 최근 연구원에서 복지패키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구상 중임. 농업이나 농촌정책, 도 단위의 강점은 정책패키지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임. 출산장려정책, 귀농귀촌에 대한 현금지원 등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데, 올미처럼 일하면서 즐겁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복지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시대라 생각함.

▷ 강현수 원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복지패키지에 충남을 테스트베드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용준박사님 발표자료에 대한 의견을 차미숙 박사께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수도권연담화로 가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차박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 차미숙 박사 : 미래 공간구조에 대한 정답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음. 2040을 보면서 작년도에 목표년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었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미래는 어디까지일까. 그래도 한세대, 적어도 30년을 단위로 미래연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연구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연구 후에 그런 연구를 하게 되었던 경험이 얼마나 소중했었던 것인지 깨닫게 되었었음. 충남도 이런 미래연구는 좋은 시도이며 성과물이 나오게 된 것 축하드린다. 이런 성과물을 주기적으로 내놓았으면 한다. 요즘 우리나라의 변화사이클이 매우 빠르다. 지사님 계실때라도 이런 성과물을 계속 내놓는 것이 좋을것 같다. 이런 자료들이 있다면 정책실무자들도 방향성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드는 것. 이런 성과물이 나온것에 대해 축하하고. 본 성과물은 내년에 보면 또 옛날것이라 할텐데, 그만

큼 한국의 변화속도가 너무 빠르다. 히로시마에 6개월 있다가 왔는데, 히로시마현이 충남도 인구와 비슷하다. 굉장히 쇠퇴하고 쇠락한 느낌. 고령자 인구가 굉장히 많고 도시자체가 다이나믹하지 못한. 우리도 정책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질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음. 일본은 2008년 인구가 정점을 찍고 이후로 계속 감소하였는데, 대응전략을 만들기는 해놓고,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함. 일본은 최근 인구소멸에 대한 언급으로, 1772개 지자체 중 52% 지방이 소멸할 것이라는 지방소멸론이 나오고 있음. 인구감소, 노후, 공간구조에 대한 재편작업이,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15년에 수정계획됨. 본격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함. 지방상생전략은, 복합적문제이기 때문에 전부처가 정책대응을 하고 있음. 국토형성계획도 바꾸었음. 빈집문제, 사회간접자본, 도시내 콤팩트니스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많은 부분을 인구감소에 초점을 두고 새롭게 정책을 구상하고 있음.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아주 심각할 것임. 우리나라도 정책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임.

작년에 미래연구 중 2040년 격자단위로 인구를 예측하였는데, 인구과소화 지역을 분석하였음. 충남은 앞서 얘기했듯이 인구가 많이 빠지지 않는. 인구감소보다 총량적인 인구증가로 배제되고 있는 인구감소 심각지역이 문제로, 충남은 지역간 인구격차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해야하지 않은가. 공간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저도 수도권이 메가수도권으로 충남이 흡수가 되지 않을까 함.. B시나리오로 가기에는 충남의 캐릭터가없음. 뚜렷한 100만 도시도 없고 어중간한 지역인 것은 사실임.

ktx경제권 등이 정부에서 흡수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도 입장에 서는 마이크로하게 도시의 공간구조를 재편해야 할 것임.

충남의 인구증가와 제조업종사자 수 비교를 해보면, 아산은 제조업 증가와 함께 인구도 증가하는데, 당진은 제조업은 증가하나 인구는 증가하지 않음. 정주기반이 문제임. 개인적으로도 은퇴후 내 고향인 당진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음. 쾌적한 정주환경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간구조재편을 1위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도시일본계획 사례를 보면 성장기-개발사업들이 많음. 정부에서 입지적정화계획으로 권고를 위해 compact & network를 강조함. 지역공공네트워크, 시군차원에서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구감소 시대에 맞서 Smart decline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라면 스마트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함께 찾아봐야 할 것임.

- ▷ 강현수 원장 : 미래국토에 대해서 공간구조를 어떻게 짜야할 것인가. 충남은 정책지도를 마을단위-부락단위로 만들어 봤는데, 착시현상이 있었음. 천안아산당진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것이지만, 지역격차에 대한 문제를 극복해야할 것임.

▷ 우천식 박사 : 저도 이제 세종시민이 됐는데, 국가정책만 다루다가 지역에 대해 알고나니 참 새롭고 흥미롭게 느껴졌음. 25년뒤라.. 2040이 참 어렵다. 정책변수가 참 많은데, 글로벌 차원에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상대변수에서 수도권변수, 중국변수. 국가내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어렵다는 한계는 존재함. 거버넌스 문제, 환경변화 등의 변수들과 함께 지역과 분권화가 중요하다. 실질적인 중요도.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지역화 분권화에 대한 .

우리나라는 위에서 상당히 억누르는 정책분위기 인데, 지역이라는 입장에서 충남 경제를 봤을 때, 제조업비중이 23%였는데 57%로 3년만에 급증함. 충남은 지역편중 속에도 낙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 성장한 것임. 하지만 현재 충남은 썰물의 때이다. 제조업의 위기에서 충남은 썰물을 어떻게 탈 것인가. 중국변수를 성장률의 저하, 지역격차. 신상태 기조를 우리가 어떻게 안게 될 것인지. 우리나라도 어찌보면 신상태이다. 저성장속의 양극화, 동반침체가 진행 중임. 중국의 전환적 변화기로서 우리는 중국의 블랙홀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음.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 상당히 내부지향적인 모습이 있으나 그게 우리나라한테는 기회임. 신상태를 돌파할 수 있을만한 전략이 필요할 때임.

노동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75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함. 세종같은 경우, 벌써 22만명이 되었음. 인구전망, 공간전략. 의식주, 생활경공업을 충남이 가져갈 수 있을것이라고 봄. 문화관광산업. 인적자원 활용. 감성적산업. 자영업에 주목했으면 함. 오늘 행사를 위해 발간된 이 책을 재밌게 봤음. 2권을 기다리고 있음. 경제비전 2030과 더불어 좋은 고민거리라 생각함. 이러한 성과들이 다른 지역에도 퍼졌으면 함.

▷ 유익환 의원 : 도의원은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도와 연구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 이 책의 주제들을 보면서 염려가 된 부분으로 현재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임에 동의함. 사람이 없으면 지역의 미래가 없는 것인데, 이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도의회는 집행부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짐. 의회는 현실문제와 부딪히기 때문에 정책 실무자들과 충돌이 벌어짐. 의원들은 당장 오늘일이 급하기 때문에 25년 후를 얘기할 사람은 없음. 연구원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있고 이런 자리에 초대된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움.

얼마전 공직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결혼한지 5년 된 사람으로 자식이 1명 뿐임. 또 낳을 의사가 없느냐. 아내와 상의를 해봐야 한다는 대답. 육아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대답함. 아내가 해야할 역할을 자기가 감당을 해도 육아의 70%는 아내의 몫임. 윗 세대가 아이들 육아 신경쓰지 않고 키웠음. 요즘은 그렇지 않음. 두사람이 만났으면 둘은 나아야하지 않나. 소득수준과 출산과 비례함을 발견하였는데, 경제가 살아나고 살만하면 출산률은 늘어날 것이라

확신함.

인구절벽에 대한 심각성,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비했음. 이 주제로 이러한 토론회를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중국의 변수는 충남경제와 직결된다고 생각. 중국과 우리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대산항. 해미공항 문제등이 빨리 해결되길 바람. 공간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저의 지역구가 태안군인데, 수도권과 관련된 공간구조. 서해안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공간구조의 틀을 바꿨으면 함. 바다가 있어서 서해안이고, 서해안시대를 얘기하는 것인데, 80년대 부터 언급했었음.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충남도가 바다를 경영하고 바다를 지배하는. 공간축을 서해바다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미래를 상상해봄.

- ▷ 박형서 박사 : 연구원 21주년 축하를 드리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국토연구원에서 국토미래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우리 국토가 수도권에 흡수될 것이라라는 전망을 하셨습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전세종충남권이 연담화 될 것인가. 공간구조를 형성해 나가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협력 관계로 가야할 것임. 송미령 부원장님이 언급해주셨듯이 지역의 다양한 정주 환경으로 살아갈 것이라 생각함.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당진시는 환경문제가 심각함. 대기, 수질 담수 문제, 송전선 철폐, 주민의 건강과 재산권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음. 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이상선 대표 :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오용준박사께서 발표하신 연담화 문제 그리고 독자적 발전문제 이것이 과연 지역의 선택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듬. 지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임. 오늘 발표나 토론자 분들의 언급을 보면 인구구성이나 양적문제에서는 공통적인 의견인데, 이런 양적 수의 추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게 됨. 인구구조나 총량적인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 공간적 농촌문제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투 트랙으로 가야함. 인구적 문제가 아니라 공간구조문제로 접근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공간정의라는 문제. 화력발전소 하나 지역에서 통제도 못하는데, 충남이 선택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인구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상상력에 한계가 있을 것임. 농촌사회를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참담하고 비전이 없을 것임. 인구산계의 문제이지 총량이 문제인 것은 아닌거 같음.

- ▷ 박인성 박사 : 공간구조에 대해서, 수도권연담화가 현실일 것이라 보는데, 우리가

미래를 말할때 희망적인 것을 봐야하지 않나 생각함.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간구조에서 중국의 변수를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하지 않겠나 생각함. 전체를 볼 때 환황해권, 앞날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는 건 누구나 알지만 미래방향을 설정할때 조금 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 ▷ 강현수 원장 : 오늘 발표주제로 다루지 못한 환경 문제, 석탄화력발전 및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어야 할것임. 토론자분들 돌아가면서 한번씩 대답해 주시고 안지사님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송미령 박사 : 우리가 미래에 대한 단어로 최근 뉴노멀, 4차 산업혁명, 알파고 등을 언급함. 얼마전 ‘미래에 없어질 직업’ 군에 연구원도 포함되어 있었음. 마지막에 살아남을 직업은 치유, 레크레이션, 상담 기능은 남아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정말 미래에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됨. 미래연구가 조금 더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함. 개인들의 일상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미래연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염두에 두고, 이런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음
- ▷ 차미숙 박사 : 일본의 지방소멸에 대한 주장과 반대로 ‘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책도 있음. 현재 지방상생정책 전략이 존재 했고, 이는 예전부터 추진했지만 효과가 없었음. 중앙정부의 정책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일환이었는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기대는 의존성을 줄여야만이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함. 지역의 캐릭터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우리의 정책도 이렇게 균형감 있게 여러 각도로 생각해야 할 것임.
- ▷ 우천식 박사 : 세종시 의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제조업사이클이 썰물이라고 앞서 설명했는데, 제조업이라는 팩터가 미래에도 중요할 것임. 대전충남세종권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봤지만, 점점 발전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음. 이 지역의 Brain express way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임. 세종 미래전략포럼도 그러한 취지로 만든것. 범광역권에서 충남의 리더십을 어떻게 이끌까. 대세(대전 세종)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곳에서 강한리더십이 나온다면 충남이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함.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없었던 사례가 될 것.
- ▷ 강현수 원장 : 대덕의 이공계브레인+세종의 정책브레인을 합쳐 대세로 표현한 것 새롭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의원님 종합의견 부탁드립니다.

▷ 유익환 의원 : 연구원님들 의회 욕 많이들 하실텐데, 의회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임기 4년 동안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기 어렵다. 창조적인관점을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이야기 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대립형임. 건전한 긴장 관계의 지방의회, 집행부와 의회는 양쪽 수레바퀴와 같음. 함께 가야함. 충돌이 벌어지면 도정이 어렵게 됨. 도의회를 향한 성원과 격려도 부탁함. 충남도의 미래를 위해 의원들도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었으면 함.

▷ 안희정 도지사 : ‘충남의 미래 2040’ 을 연구하신 연구자님들, 오늘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토론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론이 나왔던 배경을 생각해보면, 중세시대 수 많은 논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모습을 보고, 과연 인간이 합리적 이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 순수이성비판 이었다. 우리는 연구분야에서 기본 랭귀지가 있음. 지나간 환경에 대한 랭귀지는 아닌지 이 시점에 되돌아 보았으면 함. 기존역사로부터 내려온 관점과 언어로는 같은 생각밖에 나오지 않음. 정부중심, 국가중심, 관중심의 역사 들이 그러한 예라 생각함. 예를들어 ‘사대주의’ 라는 언어가 나쁜 것이 아닌데, 역사적 관점의 비판적 시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볼 수 있음. 과거 사대주의라는 개념에 사로잡혀 대국과의 외교관계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 우리가 국제시대에서 거대 중국시장, 미국시장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적의식이 반영되어 있음. 큰 나라와의 국제적 관계 방식에 있어서 기존 의식들에 사로잡혀 비판적 시각의 나머지 공간만 연구를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함. 연구자들의 시각과 관점과 랭귀지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관점의 확립이 불가능할 것임. 이미 해답이 있는 영역을 우리의 인식이 바뀌지 않아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함. 정부의 역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납세자가 정부에 권리를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바라봤으면 한다. 납세자가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바가 많지 않음. 박정리의 토지에서 만주로 간 서희의 일행이 하는 말을 보면, 독립운동하러 가는 자식에게 부모가 "너같은 사람이 무슨 나라에 도움이 되겠다고, 아서라 이 놈아" 라는 장면이 나온다. 그 대사가 함의하는 바가 무엇일까. 유권자들은 정부에 대해 무엇을 배신당한 것일까. 최근에는 정부와 정치가 과잉보호론을 펼치고 있음. 실제로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말로만 역할을 다할때가 많은것 같음. 정희진박사가 가부장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남자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오빠만

믿어 내가 다해줄게"라고 한다고 한다. 유권자와 정부관료의 관계처럼 남성이 부장주의의 큰 오류가 존재한다. 충남의 미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현재 시대를 반영한 연구 랭귀지를 새롭게 설정하고, 기존의 랭귀지로 인해 우리가 놓쳐버린 것은 없는지 되돌아 보고, 정말 우리가 쓰는 관점을 다시 한번 정비해보길, 21주년을 맞이하는 연구원님들께 기대해 본다.